

# “흑인민족주의”: 역사적 변이\*

황 혜 성

〈한성대학교 사학과〉

## 1. “흑인민족주의(Black Nationalism)” 개념정리 및 문제제기

“흑인”은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검은 피부의 인종을 뜻하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에 민족주의(Nationalism)가 적용되는 이유는 흑인들이 지니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민족주의는 어떤 한 민족이 다른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재결합을 시도할 때에 나타났다. 흑인의 경우에도 다른 인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역사적인 경험을 겪는 가운데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과거에 소유했던 지역이나 나라를 되찾으려는 의도에서 전개되는 민족주의는 흑인민족주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종족 출신이 아니며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용하였던 언어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흑인민족주의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흑인이 공통된 경험에서 비롯된 강한 인종적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고, “백인”이라는 타자에 대비되는 “흑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전개된 흑인민족주의는 노예제도라는 확실한 원인을 지니고 있다. 즉 노예생활이라는 공통체험이 미국 흑인들로 하여금 강한 인종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흑인민족주의는 흑인들이 아프리카로부터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고, 까만피부빛 때문에 고통받아 온 공통된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기인되며, 이를 바탕으로 흑인들이 단결하고 조직화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흑인민족주의는 모든 흑인들의 단결을 촉구하고 흑인들이 집단적인 운명을 지녔으며 한 민족처럼 전세계에 대하여 공통의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한다.<sup>1)</sup>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Wilson Jeremiah Moses, *The Golden Age of Black Nationalism: 1850-1925*(Archon Books, 1978), pp. 16-17; Agustina Herod & Charles C. Herod, *Afro-American Nationalism*(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6), p. 1.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때 흑인민족주의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며, 당혹스러울 정도로 잡다한 아이디어들이 흑인민족주의라는 우산 속에 수용된다. 따라서 흑인민족주의는 각 시대의 사회적, 지적 흐름에 영향받는 가운데 때로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때로는 과격한 움직임으로 표출되었다. 그리하여 흑인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는 과격한 분리주의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흑인들의 진보를 강조하는 가운데 백인문화로의 동화주의를 옹호하기도 하였으며, 흑인문화의 우월함과 독특함을 보존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sup>2)</sup>

흑인민족주의는 표현양식에 따라 크게 정치적 민족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문화적 민족주의로 분류된다. 정치적 민족주의는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이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의 영역을 - 사회, 마을, 또는 나라 - 구축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경제적 민족주의는 흑인들이 자신들만의 조합이나 기업을 조직하여 미국경제에서 흑인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문화적 민족주의는 흑인들이 백인과 다른 독특한 문화와 삶의 양식, 가치관, 철학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따라서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흑인문화는 미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중의 하나이며 독특한 흑인문화를 보존하자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sup>3)</sup>

다양한 표현방식에도 불구하고 흑인민족주의는 공통된 목적을 지녔다고 보겠다. 흑인민족주의는 “흑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국사회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거부하고 평등한 대우를 누리며, 더 나아가 도덕적, 문화적, 물질적인 진보를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sup>4)</sup>

흑인민족주의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를 요구하는 과격한 운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흑인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60~70년 사이에 새로운 세대의 흑인 학자들이 계속 변하여 온 “흑인민족주의” 개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통합과 동화를 거부하는 새로운 행동가들과 대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60년대의 과격한 흑인분리운동을 흑인민족주의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인민족주의의 핵심개념은 결코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분리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리를 주장하는 근자의 과격한 흑인운동은 정치적 흑인민족주의의 일환이며 이미 19세기 초에 이와같은 주장과 움직임이 있었다. 물론 경제적, 문화적 민족주의도 극단으로 흐르면 분리를 요

2) Moses, *The Golden Age*, 20; Raymond S. Hall, *Black Separatism in the United States*(New Hampshire: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78), pp. 1-2.

3) Hall, *Black Separatism*, pp. 1-2.

4) E. U. Essien-Udom, *Black Nationalism: A Search for an Identity in America*(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 vii.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흑인과 백인의 총체적인 물리적 분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반복해서 말하건대 흑인분리주의는 흑인민족주의의 한 분파이지만 흑인민족주의가 흑인분리주의와 동일시 될 수는 없음은 분명히 해야만 한다.”<sup>5)</sup>

본고는 미국의 흑인민족주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배경속에서 살펴보는 데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흑인민족주의를 분리와 동화의 이분적 틀로 해석하고 이를 근자의 과격한 흑인분리운동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흑인민족주의가 지니는 포괄적인 성격과 역사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비록 흑인민족주의가 1960대 이후 과격한 양상을 띄우게 되었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단절된 운동이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니그로 민족주의”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 이후에 이르러서 가장 과격한 형태의 운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흑인민족주의를 역사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의 흑인민족주의를 먼저 고찰하고, 1920년대의 “새로운 흑인(a New Negro)”과 함께 등장한 보다 과격해진 형태의 흑인민족주의를 다루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1920년대 이후 흑인민족주의 운동이 과격화하는데 영향을 미친 제반 요인들을 분석하고 “근자의 과격한 흑인운동이 준비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낸” 마르쿠스 가비(Marcus Garvy)와 1960년대 이후의 흑인민족주의 성격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말콤 엑스(Malcom X)의 연구를 통해 근자의 흑인민족주의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흑인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미국사회의 흐름을 진단해보는 시도이기도 하다.

## 2. “니그로 민족주의”의 출현

힘겨운 삶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흑인민족주의는 그 기원에 있어서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신생공화국수립은 “자유” 흑인 뿐만 아니라 노예들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 주었고, 억압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사회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고취시켜 주었다. 더욱이 신생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억압받는 노예의 현존과 이를 정당화하려는 백인들의 애매모호한 태도로부터 기묘한 긴장이 야기되었다. 흑인지도자들은 독립선언서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백인에게만 해당되는 자유라는 것을 알았으며 이러한 모순 가운데 자유와 평등에 대한 흑인들의 열망은 더욱 커졌다. 흑인노예들이 흥얼거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는 그들의 열망을 잘 드러내고 있다.

5) Hall, *Black Separatism*, p. 3; Moses, *The Golden Age*, p. 11.

너의 건강과 힘이 쇠진 할 때  
 굶주림과 슬픔에 빠질 때  
 독립을 너의 목표로 삼아라  
 이것의 의미를 언제나 되새기고  
 너의 몸을 저당잡혀 그 보상을 받아라  
 비록 하늘 끝까지 몸이 쌓인다해도!<sup>6)</sup>

자유에 대한 흑인들의 갈망은 수년내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흑인노예들은 백인 감리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아프리카 감리교를 설립하였고, 덴마크 베세이(Denmark Vesey)와 같은 흑인은 1822년 찰스타운에서 대규모의 노예반란을 획책하여 흑인분리를 주장하였다. 특히 흑인노예들을 억압받는 이스라엘민족에 비유한 점은 그의 주장이 민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부흑인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민족주의적 감정은 이론화 되거나 조직적인 행동으로 발전되지 못하였고, 그나마도 기구를 조직하고 사회운동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었던 북부에서 형상화될 수 있었다.<sup>7)</sup>

노예해방 이전의 “니그로 민족주의(Negro Nationalism)”는 19세기 초에 북부에서 등장하였다. 이는 1817년 창립된 미국식민회(American Colonization Society)가 자유흑인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자는 정책을 수립하자 이에 대한 흑인들의 항거로부터 비롯되었다.<sup>8)</sup>

당시 노예제도 문제 다음으로 흑인들을 분노케하고 결속시킨 현안은 백인들이 주도한 흑인식민정책이었다. 1816년 12월에 열린 미국식민회 창립준비위원회 개막식에서 당대의 노련한 정치가 헨리 클레이(Henry Clay)는 자유흑인들을 “쓸모 없고 위험하지는 않지만 유해한 존재들”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기초연설처럼 미국식민회는 1817년에는 북동부 연안의 발티모어, 뉴욕, 필라델피아에, 1819년에는 찰스턴, 프로비던스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흑인들을 신생독립국인 라이베리아로 보내자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북부자유흑인들은 집회를 열어 클레이의 연설을 “자유흑인들의 명예에 부당하게 오점을 찍는” 이야기라고 비난하면서 식민계획을 “잔인할 뿐만 아니라...공화국이 자랑으로 여기는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질책하였다. 1817년 여름 필라델피아의 흑인들은 식민정책을 노예해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6) John Hammond Moore, “A Hymn of Freedom--South Carolina, 1813,” *Journal of Negro History*, vol. 50, no. 1(Jan. 1965), p. 53.

7) Bennett Jr., *Before the Mayflower: A History of Black America*(Johnson Publishing Co., 1988), pp. 127-31.

8) Essien-Udom. *Black nationalism*, p. 19.

9) Leonard P. Curry, *The Free Black in Urban America, 1800-1850: The Shadow of the Dream*(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p. 232-33.

흑인들은 아프리카로 흑인들을 보낸다는 계획에 강력하게 항거함을 밝힌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식민회가 1819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민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자 흑인들의 항의도 수그러 들었다.<sup>10)</sup>

1820년대 말과 3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식민회는 랄프 걸레이(Ralph R. Gurley)의 지도 하에 보다 강력한 식민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흑인들의 항거의 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당시 주요 도시중에서 자유흑인들이 가장 많았던 발티모어에서는 1826년에 야곱 그리저(Jacob Greener)라 불리우는 흑인이 식민정책자의 연설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흑인 이주에 쓰는 에너지를 흑인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우선적으로 쏟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발티모어 흑인 교사인 윌리엄 왓킨스(William Watkins)는 “우리는 소매처럼 라이베리아로 내몰리는 것보다 차라리 메릴랜드의 잔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법 아래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거의 모든 흑인들이 미국을 떠나 라이베리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식민회는 “때가 되면 모든 흑인들이 그곳으로 제거될 것 이라고” 생각했다.<sup>11)</sup>

1831년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내트 터너(Nat Turner)의 반란은 북부 과격한 백인들의 노예제폐지운동을 고조시켰고, 이에 편승하여 미국식민회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어 졌다. 흑인들은 뉴욕 회합에서 식민회 뉴욕지부의 정책이 “부정하고, 반자유주의적이고, 건전하지 못하며…… 우리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 땅을 우리의 모국으로 여기며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보스턴에서의 대중집회에서도 흑인들은 미국식민회를 “말 많고 권력 남용적이고 평화를 깨뜨리는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발티모어, 워싱턴, 부르클린, 피츠버그 등의 자유흑인들은 집회를 통하여 미국식민회에 대하여 비난과 항의를 쏟아 부었다. 북부 자유흑인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로 결국 미국식민회의 흑인이주정책은 실행되지 못하였다.<sup>12)</sup>

그러나 미국식민회의 흑인이주정책은 흑인들을 결속시켰고 전국적 규모의 흑인조직으로 이어졌다. 1829년 신시내티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쫓아내려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1830년부터 전국적 규모의 정기흑인총회(the Negro Convention Movement)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광범위한 흑인들의 호응하에서 주로 도시의 흑인대표들, 특히 매사추세츠부터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D. C.에 이르는 북동부 연안지대의 도시로부터 흑인대표들이 모여 필라델피아

10) Curry, *The Free Black*, pp. 233-34; Early Lee Fox, *The American Colonization Society*(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19), pp. 46-51.

11) P. J. Staudenraus, *The African Colonization Movement, 1816-1865*(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pp. 36-93; William L. Garrison, *Thoughts on African Colonization*(Boston: Garrison and Knapp, 1982) pp. 14, 19, 22-23.

12) Staudenraus, *African Colonization Movement*, pp. 193-96; Garrison, *Thoughts on Colonization*, pp. 19-25, 35.

와 뉴욕에서 정기집회를 열었고, 도덕개혁과 문맹퇴치를 위한 기구들을 창설하였다. 남북 전쟁전까지 매년 열린 이 총회는 노예해방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였고 흑인들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곤궁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sup>13)</sup>

정기흑인총회의 또 다른 현안이 바로 흑인이주정책이었다. 흑인들은 개인차원에서의 자발적 이주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흑인을 집단적으로 강제이주 시키려는 백인들의 계획은 그 자체가 “사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정기총회에서 흑인들의 캐나다로의 이주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1830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총회에서 캐나다 북부로의 이주문제가 심도깊게 논의되었고 1832년 총회에서는 “800 에이커의 땅이 이미 확보되었고 2000명의 흑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sup>14)</sup> 특히 이 총회는 캐나다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미국식민회의 흑인 식민정책에 대한 국회예산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흑인들이 자발적인 이주를 계획할 때에도 대다수의 흑인 대표들은 아프리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움게도 1835년 총회에서는 반아프리카 감정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윌리엄 휘퍼(William Whipper)는 모든 흑인 교회, 기구, 집회명에서 “아프리카”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휘퍼처럼 대부분의 흑인 엘리트들은 백인의 눈을 통해본 아프리카를 비판없이 받아들였고 자신의 아프리카 기원을 부끄러워하였다.<sup>15)</sup> 따라서 이주를 분제해결책으로 생각했던 흑인들조차도 아프리카로의 이주는 반대하였다.

흑인 지도자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이해하여야만 이해할 수 있다. 18세기 말부터 서구사회에서는 문명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유럽문명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었다. 흑인들 역시 “니그로 진보”를 강조하였고 19세기 전반기 내내 인종적 향상과 진보가 흑인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수사어가 되었다. 북부 흑인지도자들은 서구문명의 우월함과 아프리카 문명의 낙후됨을 대비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백인사회를 의미하였고, 향상이란 백인을 모방하고 그들의 삶을 지향함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흑인의 정치적 분리는 찬성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sup>16)</sup>

한편으로 서부 개척시대가 열리면서 노예제도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간의 반목은 더욱 깊어졌다. 북부는 단결과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남부의 노예제도를 즉각 폐지시켜야

13) Curry, *The Free Black*, pp. 212-13.

14) John W. Cromwell. “The Early Convention Movement,” *American Negro Academy, Occasional Papers* No. 9(Washington, D. C: American Negro Academy, 1905), pp. 5-8.

15) Harold R. Issac, “The American Negro and Africa, Some Notes,” *The Phylon*(Atlanta University) XX, no. 3(Fall, 1959), p. 232.

16) Moses, *The Golden Age*, pp. 20-22.

한다고 공격하였고 남부는 남부대로 노예제도 옹호론을 더욱 강경하게 펼쳤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로버트 영(Robert Alexander Young),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와 같은 흑인들은 흑인민족주의를 이론화하기 시작하였다. 로버트 영은 1829년 2월에 흑인민족주의의 정수가 담긴 『이디오피아 강령 (Ethiopian Manifesto)』을 출판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전세계 흑인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 흑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하는 범흑인운동을 최초로 언급하였다.<sup>17)</sup>

거의 비슷한 시기인 1829년 9월에 데이비드 워커는 『전세계 유색인종에게 보내는 호소 (Appeal to the Colored Citizens of the World)』를 출간하여 가장 포괄적인 흑인민족주의를 주창하였다. 특히 워커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아프리카 후손들은 모두 아프리카인이고 형제들이기에 다 같이 단결하여 압제자들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 이디오피아와 이집트의 아프리카 선조들이 최초의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아프리카인들은 백인들보다 신체적으로 강인하므로 생각보다 쉽사리 범흑인운동이 성취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sup>18)</sup>

워커는 그후 전개되는 과격한 흑인분리주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주장은 루이 우드슨(Lewis Woodson), 헨리 가네트(Henry Highland Garnet), 알렉산더 크롬웰(Alexander Crummell), 마틴 드레니(Martin Delany)와 같은 흑인민족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세기에 전개된 과격한 형태의 흑인민족주의 거의 모두가 이미 워커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흑인교회단(Black Muslims)이 내세우는, 특히 엘리아 무하메드(Elijah Muhammad)가 주장하는, 모든 백인들은 악마들이라는 개념과, 백인여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말콤 엑스가 지녔던 언젠가는 암살 당하리라는 예측 등은 이미 워커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실제로 워커 자신도 1830년 『호소문』이 출간된지 1년이 안되어 독살당하였다). 특히 공동운명체인 전 세계 흑인들은 단결하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sup>19)</sup>

1850년대에 이르면 자발적 흑인분리주의 움직임이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를 비롯하여 비분리주의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커졌다. 한 흑인은 “나는 흑인들의 진보에 필요한 흑인들이 우리를 떠나고 현재의 타락된 상태에 우리를 묶어 놓을 쓸

17) Essien-Udom은 *Black Nationalism*에서 “니그로민족주의”와 “흑인민족주의”를 구분하여 전자는 미국 흑인의 해방과 자유를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전세계 흑인의 단결을 촉구하는 범흑인운동의 성격을 띠었다고 설명한다.

18) Sterling Stuckey, *The Ideological Origins of Black Nationalism*(Boston: Beacon Press, 1972), pp. 7-9.

19) *ibid.*, pp. 10-13.

모였고 뒤떨어진 흑인들만이 남아있을 것을 진실로 두려워 하였다.”고 회상하였다.<sup>20)</sup> 1854년의 정기흑인총회는 주로 흑인이주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마틴 딜레니가 중심이 된 분파는 서아프리카의 니저 벨리(Niger Valley)로 이주할 것을 주장하였고, 또 흑인 시인인 제임스 화이트필드(James M. Whitefield)를 중심으로 한 흑인들은 중미로의 이주를, 그리고 제임스 테오도르 홀리(James Theodore Holly) 목사 중심의 흑인들은 하이티섬으로의 이주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아프리카로의 이주는 대다수의 흑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흑인의 자발적 이주운동이 사그러 들었다. 흑인들은 노예제가 폐지되면 그들이 미국인으로서의 시민권을 얻으리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시민권은 곧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한 해방노예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그들의 부풀어 오른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노예의 사슬은 흑독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누릴 수는 없아해도 흑인은 자신의 권한이 보장되리라고 믿었다. 혁명은 진보를 의미하기 때문에...<sup>21)</sup>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흑인민족주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적이다. 당시 흑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노예해방이었기에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방법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 시대의 흑인 지도자들 중에서 이 방법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거의 모든 흑인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자리가 주어지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만 있다면 미국내에서 살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백인들이 미국을 백인의 나라라고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피부빛은 초월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흑인 지도자들은 미국에 가까운 다른나라로의 자발적인 이주를 이야기 하였다.<sup>22)</sup>

### 3. 남북전쟁 이후의 흑인민족주의

남북전쟁은 미국역사에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하나의 미국으로 통합되는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400만 흑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유를 가져다 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노예제도의 폐지와 이에따른 조치들은 흑인들에게 명목상의 자유만을 주었을 뿐 정치적

20) Howard H. Bell, “The Negro Emigration Movement, 1849-1854: A Phase of Negro Nationalism,” *The Phylon*, XX, no. 2(Summer, 1959), p. 135에서 인용함.

21) William Wells Brown, *The Rising Sun: Or The Antecedents and Advancement of the Colored Race* (Boston: A. G. Brown & Co., 1874), p. 413.

22) Stuckery, *The Ideological Origins*, pp. 28-29.

평등이나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는 데에 실패하였다. 오히려 흑인단속법(Balck Codes)을 통한 제약과 압력이 고조되었다. 이제 자유와 노예해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던 흑인민족주의자들은 백인들의 압력에 대한 자구책으로써 자립, 인종적 유대감, 이주, 분리, 흑인들만의 사회건설, 전국가적 흑인단체의 향상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 흑인민족주의는 더욱 고취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흑백분리, 그리고 백인우월주의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린치를 포함한 흑인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하였고, 거의 모든 흑인들은 수정헌법 제 15조항으로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있었다. 흑인지도자들은 흑인이 당면한 곤궁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뉴욕 에이지(New York Age)』의 편집장인 토마스 포춘(Thomas Fortune)은 분노의 소리를 높이고 항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인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흑인들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sup>23)</sup> 흑인 엘리트 헨리 터너(Henry McNeal Turner)는 흑인들이 극에 달한 백인우월주의에 대하여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미국에서는 흑인의 미래가 없으므로 아프리카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흑인들이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4)</sup> 반면에 성공한 변호사 찰스 테일러(Charles H. Taylor)는 흑인들은 미국내에서 인종적 정체감을 유지하면서도 백인과 상호공존할 수 있으므로 미국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제안하였다.<sup>25)</sup>

흑인 엘리트들로부터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지만 법적인 자유만을 지니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가진 것없는 대다수의 흑인 사이에는 또다른 종류의 무력함과 절망감이 감돌았다. 따라서 19세기 말에 이르면 자립, 인종적 유대감, 이주, 분리, 흑인사회의 건설 등을 강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 졌고 오히려 백인사회로의 동화와 순응의 소리가 더욱 커졌다. 다윈주의와 빅토리아적인 가치관이 풍미하는 가운데 흑인은 진화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백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성실, 근면, 검약, 청결의 덕목을 익혀 오랜 노예생활의 잔재를 털어버려야 한다는 소리도 들렸다.<sup>26)</sup>

이 시기를 흑인역사에서 “부커 워싱턴의 시대(The Age of Booker T. Washington)”라 부른다. 그리고 이시기는 소위 경제적 흑인민족주의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미국사회는 속

23) Emma Lou Thornborough, *T. Thomas Fortune: Militant Journalist*(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24) Edwin S. Redkey, *Respect Black: The Writing and Speeches of Henry McNeal Turner* (New York: Arno Press and the New York Times, 1971).

25) Randall B. Woods, “C. H. Taylor and the Movement for Black Political Independence 1882-1896,” *The Journal of Negro History*, vol. 67, no. 2 (Summer 1982), pp. 122-35.

26) Moses, *The Gloden Age*, pp. 27-28.

련된 산업노동자와 유능한 기업가를 요구하였고 흑인 지도자 부커 워싱턴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흑인 산업 전문인과 기술가를 배출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터스키기 기술학교(Tuskegee State Normal School for Negroes)를 운영하며 흑인들에게 산업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흑인들은 우선적으로 남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어서 백인들에게 인정 받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룬 후에 백인들과 동등한 정치적인 권한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워싱턴을 경제적 흑인민족주의자로 간주하는 이유도 바로 그가 흑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가운데 최우선의 과제로 두었기 때문이다.<sup>27)</sup>

비록 과격한 흑인 엘리트들이 워싱턴의 순용·회유정책에 반대하여 나이아가라 운동(Niagara Movement)을 전개하고 정치적인 권한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던 대다수의 흑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20세기 초 워싱턴의 비판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두 보이즈(William. E. B. Du Bois)는 문화적 흑인민족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백인조차도 받기 어려운 대학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학에서 장학금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식인이었던 두 보이즈는 인종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학자로서 흑인들이 지닌 흑인이며 동시에 미국인이어야 하는 “두개의 영혼(Two Souls)” 사이의 갈등을 수려한 문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는 아프리카 문화를 연구하고 흑인들이 백인문화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흑인은 아름답다(Black is Beautiful)”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의 우월한 흑인문화 강조는 “재능있는 10분의 1(Talented Tenth)” 이론으로 이어졌다. 즉, 흑인엘리트층을 형성하여 다수의 무지한 흑인들에게 아프리카 문명의 우수성을 가르치고 인종적인 자부심을 갖도록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보이즈는 아프리카 문명의 우수함을 강조한 측면에서 그 후 전개된 범흑인운동을 주창한 인물로서 1차대전 이후 전개된 가비운동과 할렘 르네상스의 내면적인 초석을 놓았다.

#### 4. “새로운 흑인”과 마르쿠스 가비

제 1차대전은 흑인민족주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서구문명에 대해 기본적인 존경심을 지녔던 19세기까지의 흑인들과는 달리 20세기 초의 흑인들은 비이성적인 대량학살에 연루된 서구문명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들이 바라보고 동경하는 대상은 아프리카 자체가 되었으며 아프리카 문명의 우수함을 찬양하기에 이르렀

27) 부커 워싱턴은 흑인이 경제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흑인민족주의를 “a technocratic black nationalism”이라고도 부른다.

다. 이렇게 흑인들의 시각이 변화된 데에는 1차대전이라는 사건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제 1차대전이 종식된 이후 뉴욕 할렘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가비운동은 바로 변화된 흑인들의 태도를 반영하였다. 그러므로 가비에 이르러서 비로소 “흑인은 아름답다.”는 두 보이즈의 흑인문화 예찬이 대중운동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세기 초부터 등장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던 흑인민족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마르쿠스 가비를 맞아 과격한 분리주의운동으로 변모하였다. 1887년 자마이카 북부 작은마을에서 태어난 마르쿠스 가비는 흑인왕국을 꿈꾸며 1914년 세계흑인향상협회(UNIA: Universal Negro Improvement Association)를 조직하였고 1916년에는 미국으로 와 뉴욕에 지부를 설치하고 “하나의 신, 하나의 목적, 하나의 운명”이라는 구호아래 흑인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었다. 그의 “아프리카로 돌아가자(Back-to-Africa)”는 운동은 전형적인 흑인분리운동으로 당시 가난한 흑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가비운동이 흑인들 사이에서 불러 일으킨 들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일차대전이라는 사건이 흑인들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미국흑인들에게 있어서 일차대전은 일종의 각성제와 같은 경험이었다. 일차대전은 남부에 편중하였던 흑인인구를 북부로 이주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흑인들은 도시의 새로운 환경에서 임금노동자로 탈바꿈하였다. 북부도시로 이주한 흑인들은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바탕으로 자기존중과 독립의 태도를 길렀고 흑인 지도자 부커 워싱턴이 주장하는 남부 농촌 중심의 인종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새로운 흑인(New Negro)”이 도시를 중심으로 태어났다. 더욱이 일차대전에 참전하여 유럽전선에 나가 싸운 20여만명의 흑인병사들의 이야기는 흑인들에게 새로운 의식세계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흑인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사회에서 보다 평등하고 나은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지니게 되었다.<sup>28)</sup>

그러나 흑인들의 기대는 부서지고 말았다. 전후 미국사회는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나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보수반동의 분위기로 돌아갔다. “정상상태로의 환원(Back to Normalcy)”이라는 슬로건 하에 흑인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을 본래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KKK가 소생하였고 흑인과 백인간의 긴장과 적대감은 오히려 한층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제 흑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백인들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에 과감하게 항거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19년에는 “지금까지 이 나라가 목격한 어느시기 보다도 더 잦은 흑인과 백인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대규모의 충돌은 백인과 흑인사이의 증오감을 더욱 부채질하였고 흑인들 사이에 고조된 불만과 좌절감은 과격한 주장으로 나타

28) 황혜성, “일차대전과 ‘새로운 흑인’” 『북미연구』, 장간호 (1995년 6월), pp. 43-60.

났다. 흑인들은 이제 기다리는 태도에서 벗어나 과격한 행동을 취하였고 이 새로운 흑인들은 전쟁전의 흑인들과는 달리 “검은얼굴”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스스로가 자유인임을 강하게 인식하였다.<sup>29)</sup>

바로 이러한 시기에 마르쿠스 가비가 출현하였던 것이다. 일차대전후 흑인들은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려 하였고 가비의 출현은 매우 독특한 양상의 흑인민족주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가비는 뉴욕의 하층 흑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조직을 확대해 나갔고 1919년 중반에는 30개의 지부와 100만 회원을 지닌 조직으로 이를 발전시켰다. 또한 기관지인 『니그로 월드』(*Negro World*)를 발행하여 1920년에는 발행부수 20만부에 달하는 인기잡지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파시켰다. 가비는 일차대전이후 자의식은 높아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진 것 없는 흑인 대중을 향해 “민족적 긍지”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그는 흑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프리카 역사에서 흑인의 위대함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흑인들 개개인이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였다. 그는 일차대전 중에 백인들이 내건 민주주의와 인종간의 동화라는 아이디어를 냉소하며 미국은 백인의 나라이므로 흑인의 조상이 살았던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아프리카에 세워질 흑인왕국에는 인종문제와 폭력이 없으리라는 그의 주장은 긴장된 흑백관계에 지친 흑인들에게 일종의 위안을 제공하였다. 그럼으로써 “백인 흉내 내기를 그만두고 분리를 일종의 가려진 축복으로 받아들이자”는 그의 메시지는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sup>30)</sup>

가비의 메시지가 흑인 대중사이에 파고들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로 범흑인운동(Pan-Africanism)을 들 수 있다. 1900년 런던에서 최초의 모임을 가진 범흑인운동은 20세기 초의 탁월한 흑인 지도자 두 보이즈에 의해 1919년, 1921년, 1923년, 그리고 1927년에 범흑인운동 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이 운동은 아프리카 대륙이 지닌 역사와 문화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 후손들에게 인종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단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범흑인운동은 주로 도시의 엘리트 흑인들 중심의 운동이었다. 범흑인운동을 다수의 노동자계층의 흑인들에게까지 확산시키는데 공헌한 인물이 바로 가비였다. 가비는 “인종적 자긍심과 사랑을 고양시키고, 타락한 흑인들을 교화하고, 가난한 흑인을 돕고, 낙후된 아프리카 부족을 개화하고, 독립된 아프리카 국가를 세우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의 주요 나라들에 지부를 설치하기

29) John Hope Franklin, *From Slavery to Freedom*(New York: Knopf, 1967), pp. 347-49; Florett Henri, *Black Migration: Movement North, 1900-1920* (Anchor, 1975), pp. 319-25.

30) Herbert Shapiro, *White Violence and Black Response*(Amherst: The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8), pp. 161-69.

위하여” UNIA를 건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도시의 가난한 흑인들에게 자긍심을 지니라는 범흑인운동 메시지를 전달하였다.<sup>31)</sup> 도시의 가난한 흑인들 사이에서 가비운동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으나 흑인 지식인의 눈에는 지나치게 감상적인 가비의 주장과 행동이 매우 비합리적으로 비추어졌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분리주의는 극단적인 흑인우월주의로 흘러 흑인중심의 편견을 내세움으로써 흑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난을 자아냈다. 더욱이 가비는 몰레토들을 배신자, 거짓말장미들이라고 혹평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흑인지식인들이 몰레토였음을 상기해 볼때 그들이 가비운동에 호응하지 않았음은 자명해진다. 범흑인운동 위원회를 조직하였던 두 보이즈 조차도 가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가비운동에 감화되어 아프리카로 간 흑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은 가비운동이 현실성을 결여하였음을 보여준다.<sup>32)</sup>

가비운동은 단명하였다. 그러나 과격하고 극단적인 분리주의자 가비가 이끈 이 운동은 프로그램의 중요성보다는 그가 당시 가난한 흑인들에게 심리적인 보상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북부로의 대이주, 도시화 경험, 정치참여, 일차대전의 참전 등으로 의식의 폭은 넓어졌지만 백인사회의 문은 굳건히 닫혀있는 현실 속에서 절망감을 맛보았던 “새로운 흑인”들은 가비운동에서 일종의 안식처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가비의 메시지는 이후 드류 알리(Drew Ali)가 조직한 무어인학술사원(Moorish-American Science Temple)과 드바인 신부(Father Divine)가 조직한 평화운동(Peace Mission Movement)으로 이어지고, 결국 1930년 왈라스(Wallace D. Fard)가 디트로이트, 미시간을 중심으로 흑인교회단(Black Muslims)을 조직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흑인교회단은 엘리야 무하메드(Elijah Muhammad)로 이름을 바꾼 가비주의자 엘리야 풀(Elijah Poole)이 이끌었으며 흑인민족주의 집단 중에서 가장 과격하고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비의 “인종적 긍지” 메시지는 흑인교회단 목사였던 말콤 엑스(Malcom X)에게 계승되었다.

## 5. “Black Power”와 말콤 엑스

가비운동이 가라앉은 후 흑인의 과격한 분리운동은 거의 종식되었다. 전국유색인지위향상회(NAACP)와 도시연합(the Urban League)과 같은 기구들은 인종적 화합과 동화를 법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였고, 1950년대와 60년대는 비폭력과 무저항을 내건 흑인민권운동이 흑인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우선 1954

31) Judith Stein, *The World of Marcus Garvey: Race and Class in Modern Society*(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pp. 266-67.

32) W. E. B. Du Bois, “Marcus Garvey,” *The Crisis* vol. 21(Dec. 1920), pp. 58-60.

년 대법원은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 위원회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흑백분리를 폐지하였다. 또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Civil Rights Act)에서 공공장소, 고용, 노동조합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흑인에 대한 법적 차별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4년의 민권법과 1965년의 투표권법의 제정은 대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흑인들의 요구와 희망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민권운동이 흑인의 법적지위를 공고히하고 정치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흑인 대 다수는 근자의 민권법안들이 소수의 흑인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있고 다수의 흑인들의 상황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나빠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오히려 북부 빈민가에서 거주하는 흑인들은 고용, 교육, 주택에서 끊임없이 차별 받았으며 그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다. 흑인들이 실업난, 주택난 등의 경제적 곤궁을 겪고, 노동시장과 주택문제에 있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흑인 청년층 사이에서는 미국사회의 통합에 대한 환멸과 회의의 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대도시 중심으로 인종폭동이 일어나 1965년 LA의 Watts가에서 발생한 흑인폭동을 시발로하여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등 북부 대도시에서의 폭력사태로 이어졌다.<sup>33)</sup>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흑백투쟁을 풀기보다는 보다 극단적인 방법, 즉 흑백분리와 폭력행사라는 방법으로 대응하자는 과격한 흑인민족주의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되었고, 하층흑인을 대상으로 성장 중에 있던 흑인교회단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말콤은 흑인교회도의 가장 뛰어난 대변인으로서 흑인들로부터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특히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동화라는 목적을 냉소하는 흑인들 사이에 그의 메시지는 널리 퍼져나갔다.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던 1962년부터 1964년 사이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장하였던 비폭력 행동주의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흑인과 백인간의 통합에 대한 신념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가비운동이 막을 내릴 때에 증식되었던 과격한 흑인민족주의가 다시 되살아났고 말콤은 가비가 주장하였던 “흑인의 위대함(Black Power)”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흑인의 위대함”은 유동적인 개념이었다. 이는 결코 민권운동과의 결렬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자립을 강조하는 온건한 그룹부터 흑인사회건설을 이야기하는 개혁가들, 그리고 문화적 민족주의자,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에 이르는 광범위한 흑인들이 주장하는 개념이었다. 여러 면에서 “흑인의 위대함”은 “전통적 흑인운동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었다.<sup>34)</sup> 따라서

33)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80s*(New York: Routledge, 1986), pp. 95-99.

34) Robert Allen, *Black Awakening in Capitalist America: An Analytic History*(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9), p. 50.

“흑인의 위대함”이 구호로서 등장한 것은 전통적인 흑인운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NAACP와 같은 온건주의자들이 “이는 증오의 아버지이고 폭력의 어머니이며 결국 흑인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비난하였고, 백인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 마치 분리주의와 동일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흑인급진주의자들은 흑인들 내부의 계급분화와 투쟁에 주목하였고 이제 ‘계급’이라는 패러다임이 흑인민족주의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말콤 엑스라는 인물이 있었다.<sup>35)</sup>

말콤 엑스는 마르쿠스 가비가 탈세혐의로 감옥에 갇히던 해 1925년에 말콤 리틀(Malcom Little)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얼 리틀 목사(Reverend Earl Little)는 가비 신봉자로서 UNIA의 조직담당자였고 결국은 1931년 말콤이 6살 때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는 죽음을 당하였다. 말콤은 매춘소개와 마약판매 그리고 마침내는 도둑의 왕초로서 범죄의 길을 걷다가 1946년에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 아직 스무살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그는 감옥에서 가족과 동료 죄수들의 영향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고 흑인회교단(Black Muslims)을 알게 되면서 이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당시 흑인회교도는 감옥소의 흑인 죄수들 사이에서 맹렬하게 퍼지고 있었고 그는 엘리야 무하메드의 추종자가 되어갔다. 무하메드는 백인들은 알라신의 후손인 흑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태어난 악마의 자손들이라는 메세지와 백인 노예주들의 억압으로부터 흑인을 이끌고 “동방”에 있는 잃어버린 시온을 찾아가야 한다는 메세지를 강조하였다. 외부인의 눈에는 무하메드의 극단적인 가르침이 기묘해 보였지만 제임스 발드윈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가르침이 햄(Ham)의 자손들이 저주의 낙인을 찍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처럼 아주 소화 못시킬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었다.”<sup>36)</sup> 그리고 말콤과 같은 흑인들에게는 진기한 면과 과장된 어구를 제외하면 무하메드의 메세지는 상당히 진실로 받아들여 졌다. 무하메드의 주장에 따르면 백인노예주들이 아프리카 흑인 문명을 파괴하고, 흑인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으며, 그들로부터 문화, 종교, 그리고 이름까지 앗아가고, 외국어를 말하도록 가르치고, 크리스티교 신을 숭배하라고 가르치고, 백인이름을 갖도록 만들어 아프리카 흑인들을 “소위 미국흑인들”로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흑인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해하였다. 따라서 흑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공통점 — 검은 피부빛과 이로서 야기되는 증오 — 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52년 8월 가석방으로 교도소 문을 나선 말콤은 본격적으로 흑인회교단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성을 “X”로 바꾸었다. X는 알 수 없는 진짜 아프리카 성을 상징하였고, 이는 백인이 자신의 아버지쪽 선조에게 부쳐준 “리틀”이

35) Orni and Winant, *Racial Formation.*, pp. 97-98.

36) Peter Goldman, “Malcom X: Witness for the Prosecution,” John Franklin and August Meier, eds., *Black Leaders of the Twentieth Century*(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2), pp. 305-308.

라는 성을 거부함으로써 백인사회를 거부함을 의미하였다. 말콤은 흑인교회단 목사가 되어 타고난 웅변술로 사람들에게 기존 민권운동이 외치는 흑백통합주의, 점진주의, 비폭력주의가 흑인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흑인교회단만이 흑인의 진정한 대변인임을 강조하였다. 그가 목사가 된 후 흑인교회단은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고, 그는 기관지인 “무하메드의 말씀(Muhammad Speaks)”을 창간하여 흑인의 당면문제, 즉 불충분한 주택, 높은 임대료, 열등한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적하고 흑인운동가로서 활동하였다.<sup>37)</sup>

그러나 말콤이 점차 유명해지고 전세계 언론의 각광을 받게 되자 그의 과격함이 오히려 흑인기업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그를 시기하는 무리가 흑인교회단 내부에서 생겨났고, 흑인교회단은 점차 보수화하여 갔다. 사실 흑인교회단은 선동적인 연설이나 구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흑인문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몇몇 문제점들을 제외하고는 무하메드와 연방정부사이에서 공개적인 투쟁은 거의 없었으며 흑인교회단은 폭력에 의존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더우기 말콤은 점차 흑인교회단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 그는 엘리아 무하메드가 그의 여비서 두 사람으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하고 그의 간음사실이 드러나자 더욱 회의를 품게 되었고 흑인교회단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였다.<sup>38)</sup>

그 후 그는 흑인을 위한 조직체를 설립해야함을 느끼고 ‘사단법인 회교사원’을 조직하기 위하여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된다. 그는 이 여행에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피부색의 서로 다른 인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형제애를 체험하였고 아프리카 독립국들과 미국흑인들 사이에 대화를 통한 진정한 형제애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느꼈다. 이 12일 간의 성지 순례는 그가 “이전의 39년동안 넓혀왔던 시야보다 더 폭 넓은 시각을” 지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여행을 통해 그의 신앙이 더욱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백인들의 편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말콤은 1965년 2월 맨하탄에서 미국흑인통합회(Organization of Afro-American Unity)를 만들것을 주창하는 모임에서 암살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킬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채 희생되었다. 말콤은 전통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흑인 지도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남기지도 않았으며, 그의 메시지를 전해 줄 후계자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계속 될 조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흑인교회단의 대변인으로서, 미국흑인통합회의 창립자로서 가비이후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한 흑인운동가였다. 그에 의해 빈민가에서 외쳐지던 흑인 회

37) John White, *Black Leadership in America: from Booker T. Washington to Jesse Jackson*(N.Y.: Longman, 1994), p. 163.

38) Michael Parenti, “The Black Muslims: From Revolution to Institution,” *Social Research*, vol. 31, no. 2, 1964, p. 179.

교도는 정통 이슬람교와 아프리카 사회주의, 제 3세계 반식민주의, 그리고 “흑인의 위대함”으로 알려진 인종적 유대감이 합하여진 보다 숭고한 이념으로 발전하였다.

말콤 엑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가비운동이 막을 내릴 때에 종식되었던 과격한 흑인민족주의가 다시 되살아났고 더욱 과격화되었다. 그는 말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웅변가이며 독설가였고, 흑인에 대한 테러가 있는 곳에는 흑인 무장 게릴라를 보내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과격파였다. 말콤은 흑백분리만이 흑인이 살 길이요 인종통합이란 허구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전투적 입장을 취하면서 “흑인의 위대함”을 기초로한 흑인국가 독립운동을 벌였다. “내가 통합을 허용하는 유일한 것은 커피(coffee)이다.”라는 그의 농담은 그의 흑인 분리주의를 잘 표현해 준다.<sup>39)</sup>

그의 흑백통합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과감한 행위는 백인사회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었으며 동시에 흑인민족주의의 가장 격렬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는 흑인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인류의 형제애를 기초로 한 민중운동을 주장하는 사상적 변모를 보이려는 순간에 죽었다.

## 6. 맺음말

흑인민족주의는 그 기원을 19세기 초에 두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환경과 배경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 역사적인 현상으로서의 흑인민족주의는 1820년대부터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기에 “니그로민족주의”로 표현되었고, 노예해방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다. 남북전쟁이후 19세기 후반기에는 흑인민족주의가 문화적 동화와 정치적 분리라는 두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주장이 교묘하게 타협을 이루었다. 특히 이시기의 흑인지도자들은 흑인들을 “문명화”시키는 일을 급선무로 생각하였고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미국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하였다.

흑인민족주의가 과격한 분리주의 형태로 표출된 시기는 제1차대전 이후와 1960년대이다. 이 시기는 흑인들 사이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기였다. 즉, 흑인들이 높은 희망을 지녔으나 백인들의 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고 현실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시기들이었다. 따라서 제1차대전 이후의 “새로운 흑인”들의 등장과 그들의 각성은 가비운동으로 이어졌고, 60년대 민권운동이 결실을 맺은 후의 흑인들의 실망은 말콤 엑스의 추종자들을 낳았다.

흑인민족주의는 언제나 새로운 양상의 운동으로 표현될 잠재력을 지닌 이념으로서 앞으로

39) Alex Haley, *The Autobiography of Malcolm X*(New York: Ballantine Books, 1965), p. 386.

도 인종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형태를 달리하며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가비와 말콤으로 대변되는 과격한 분리주의는 현재 흑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 주지하여야 한다. 미국인이며 동시에 흑인인 “두개의 영혼”을 지닌 흑인들 자신이 결코 물리적으로 미국을 떠나 흑인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흑인 분리주의는 실현될 수 없는 흑인들의 “유토피아”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미국이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소수”세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담은 용기모양에 따라 변하는”<sup>40)</sup> 흑인민족주의가 어떠한 형태로 표현될 것인가는 앞으로 더 연구 해 볼 과제이다.

---

40) Moses, *The Golden Age*, p. 11.